

소외계층 어린이 문화·건강 도우미 티움키움 광주·전남 네트워크

## 꿈나무들의 건강한 마음·육체 책임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양극화 현상은 심해지고 있지만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국가적 관심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돌보아 주는 단체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사회양극화와 가난, 소외로 힘겨워하는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의료·시민사회·청소년·문화단체·노동조합 등으로 결성된 ‘티움키움광주전남네트워크’(이하 티움키움)가 지난해 12월18일 정식 출범했다.

이승남(42) 티움키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6개월간 진행했던 시범사업 결과 아동청소년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다”며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네트워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티움키움은 광주시의 6개 지역아동센터와 치과 병원·한의원 10곳을 연결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은 물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인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신상담과 학습문제 해결 위한 교육상담,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문화 체험도 꾸준히 해 문화적인



광주시 동구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센터에서 호남해바리기 아동센터와 티움키움의 도움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티움키움은 지난 2007년 광주시민센터 소속 지역아동센터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소속 치과가 자매결연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자매결연을 통해 아동센터와 병원 수가 늘어나면서 티움키움 단체가 만들어졌으며 이후 한의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티움키움은 몸을 돌보는 ‘건강지킴이’, 마음을 돌보는 ‘마음키움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티움이’ 등 세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운영자금은 광주·전남 치과 50곳에서 매년 기부해주고 있는 폐급을 수거해 판매한 수입금(3천만원)과 개인 후원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꾸려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한창 성장해야 할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적 혜택이 필요한데 비싼 비용 탓에 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부의 분배문제와 빈곤문제가 해결돼 아동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움키움은 2010년 주요사업으로 자체결연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곳으로 늘려 사업을 확대하며, 재정 마련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치과를 대상으로 ‘사랑의 폐급모으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시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사회복지모금회 성금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회장 김치주·사진 오른쪽에서 네번째)는 4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건국·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에 회원들이 모은 성금 1천300여만원을 전달했다.

### 조선대 수시합격자 ‘Winter Camp’ 개설



조선대학교(총장 전호중)가 2010학년도 수시합격자 200명이 참가하는 ‘Winter Camp(4~22일)’을 개설하고 최근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 회장 이·취임식



(사)한국부인회 광주광역시지부 제4대 이영자 회장 이임식과 제5대 조인석 회장 취임식이 5일 호남대 광산캠퍼스에서 박재순 한나라당 최고위원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인순일 광주시 교육감, 이학성 한국부인회 광주시지부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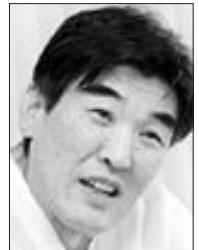
### 목포 상동 주민센터 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목포시 상동 주민센터 새마을부녀회(회장 김길자)와 통장상조회(회장 박선자)는 최근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사랑의 김장김치’ 150박스를 전달했다.

## ‘영랑시문학상’ 본상에 김지하 시인

### 우수상에 김선태 시인



김지하 시인



김선태 시인

와 정도를 보여준 영랑 김윤식(1903~1950)의 생애와 문학사적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살려 나아가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마련된 문학상이다.

한편, 우수상에는 시집 ‘살구꽃이 둘 아왔다’를 펴낸 김선태 시인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4월 강진 영랑생가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5회 영랑문학제’ 기간에 열린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kwangju.co.kr

### 광주 과학기술 교류 협력센터 원장에 김권필씨



회의장과 강의실, 세미나실 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64실의 양·한식 숙박시설, 식당, 목욕탕, 운동시설 등을 갖춰 산·학·연·관 교류 조성과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인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본부장 강달순 ◇팀장·지사장 ▲광주지사장 김홍수 ▲기획총괄팀장 손성운 ▲광주지사 클러스터운영 업동일 ▲광주지사 고객지원 유익종 ▲군산지사 클러스터운영 김재명 ▲군산지사 고객지원 안성기 ▲대불지사장 이화종 ▲대불지사 클러스터운영 문경진 ▲대불지사 고객지원 장행만 ▲여수광양지사장 안영근 ▲의산지사장 임경호

### 내방

▲강운태(국회의원)씨 ▲이용섭(국회의원)씨 ▲황용연(전남도 선관위 상임위원)씨 ▲서인덕(『홍보과장』)씨 ▲배동기(광주대 겸임교수)씨

## 세계 최초 암 표적 박테리아 활용 암치료 기술 개발

### 전남대 민정준 교수팀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저널 중 하나인 ‘암연구’ 온

라인판 최신호에 발표됐다. 민 교수팀은 연구에 활용된 살모넬라균에 대해 독성이 아생형 살모넬라보다 100만배 이상 약화된 세균으로, 세포를 녹일 수 있는 단백질(Cytolysin A)을 암 조직에 한해 원활 때만 만들 수 있도록 유전공학적으로 디자인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살모넬라 균주는 빛을 내는 발광전자를 발현하도록 설계돼 있어 균주가 암세포를 찾아가 치료하는 과정을 세